

# 쿠바농업의 이해와 협력가능성\*

김 태 곤·하 경 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시니어이코노미스트, 연구원)

## 1. 농업 개황

### 1.1. 쿠바 개황<sup>1)</sup>

쿠바의 면적은 한국보다 약간 넓은 11만 860km<sup>2</sup>로 카리브 도서국가 중 최대 면적에 해당한다. 총 인구는 2013년 기준 1,127만 명으로 수도 아바나(Havana)에는 약 220만 명이 거주하고 있다. 국내총생산은 2014년 677억 달러로 집계되었고 1인당 GDP는 5,846달러이다. 쿠바의 주요 수출품은 니켈, 설탕, 담배, 수산물, 럼주 등으로 캐나다, 중국, 스페인, 네덜란드에 수출한다. 그리고 베네수엘라, 중국, 스페인, 캐나다에서 주로 공산품, 기계, 원유, 화학제품, 식료품 등을 수입하고 있다.<sup>2)</sup>

쿠바의 기후는 열대성 기후로 연중 가장 서늘한 1월의 평균기온이 22.5°C, 가장 더운 8월의 평균기온이 28°C로 연중 기온변화가 적은편이다. 1년 중 우기는 5-10월, 건기는 11-4월로 구분되며, 8-10월 사이에는 허리케인으로 인해 풍수해가 잦은 편이다.

\* (taegon@krei.re.kr, hakjki@krei.re.kr).

1) 외교부 2015. 쿠바개황을 참고로 작성하였음.

2) 2014년 수출액은 55억 달러 수입액은 148억 달러로 97억 달러의 적자가 발생하였음.



표 1 쿠바와 한국 농업지표 비교

	쿠바	한국	비고
국토(만ha)	1,100	1,003	
농지(만ha)	630	170	
농지(초지·과수원 제외)(만ha)	270	154	
국민 1인당 농지면적(a)	57	3	
식량자급률(%)	47	50	사료용 제외
쌀자급률(%)	59	96	
옥수수자급률(%)	36	0.8	
밀자급률(%)	0	0.7	
엔겔계수(%)	70	27	

주 : (1) 한국은 2014년, 쿠바는 2013년 기준임.  
 : (2) 자급률은 중량기준임. 단지 쿠바의 식량자급률(47%)은 2008년 금액기준임.  
 자료 : FAOSTAT, 농식품부, KIEP.

표 2 쿠바의 고용인구 및 실업률

(천명)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경제활동인구	5,112	5,174	5,077	5,086	5,105	4,979
고용인구	4,984	5,010	4,902	4,918	4,969	4,860
실업인구	128	164	175	167	135	119
실업률	2.5%	3.2%	3.5%	3.3%	2.7%	2.4%

자료 : ONE, 2016.

표 3 산업부문별 종사자 수

(천명)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농림축산업	921	986	994	915	939	898
광업	33	40	39	33	27	28
제조업	486	507	608	469	462	461
에너지	101	91	83	99	99	82
건설	224	219	210	245	249	268
유통 요식업	641	647	683	740	755	770
교통 통신	304	310	286	305	319	306
금융 부동산	116	125	103	102	102	96
서비스업	2,154	2,082	1,994	2,008	2,014	1,948

자료 : ONE, 2016.

쿠바의 경제활동인구 497만 9,000명 중 고용 인구는 486만 명이다. 산업분야별로는 서비스업에 194만 8,000명의 가장 많은 인구가 종사하고, 그 다음으로 농림축산업에 89만 8,400명의 근로자가 종사(총 고용인구의 18%)한다. 농림축산업에 종사하는 인구의 수는 많지만 전체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중은 4.3%로서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다.

### 1.3. 농산물 생산과 교역

#### 1.3.1. 농산물 생산

쿠바의 주요 농산물은 사탕수수, 신선채소, 토마토 등이다. 사탕수수 재배면적과 생산량은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지만 여전히 쿠바 농산물 생산의 주요 품목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2013년 총 재배면적은 국영농장 8,200ha와 민영농장 39만 2,100ha를 합한 40만 ha로 동 면적에서 약 1,600만 톤 이상의 사탕수수가 생산되었다. 사탕수수의 생산량은 이전에 비해 감소하고 있는 추세지만 ha당 생산성은 40톤 이상으로 과거에 비해 높은 생산성을 보이고 있다. 이외에도 쿠바의 주요 생산 품목은 신선채소 81만 4,000톤, 토마토 67만 8,000톤 등 수입이 곤란한 채소류 생산은 높은 편이다. 쌀은 67만 2,000톤 정도이다<표 4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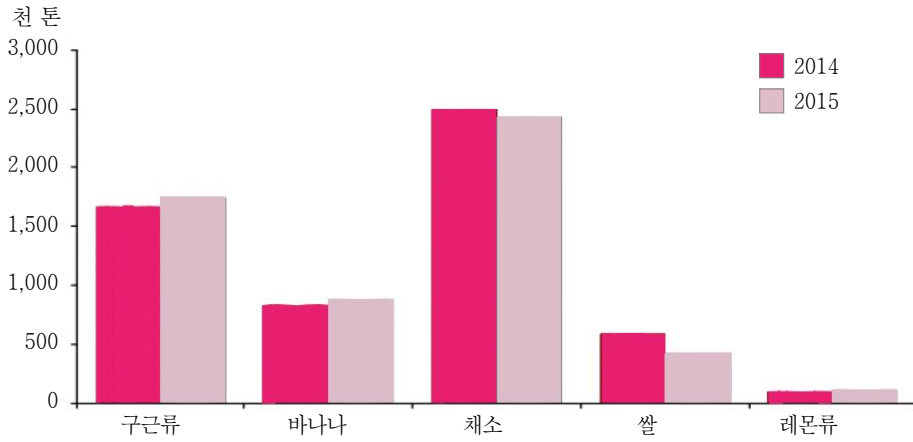
표 4 쿠바 주요 농산물 생산 현황

단위: 천 톤

	2010	2011	2012	2013
사탕수수	11,500	15,800	14,700	16,100
신선채소	807	724	786	814
토마토	517	601	557	678
쌀	454	566	641	672
카사바	405	485	465	513
플랜테인	485	585	689	508
호박	347	340	361	412
망고·망고스틴·구아바	275	270	389	410
고구마	384	311	335	396

자료 : FAOSTAT. 2016.

그림 2 쿠바 농산물 생산량



자료 : ONE, 2016.

1989년 소련 붕괴 이후 쿠바의 주요 수출 품목이었던 사탕수수의 생산은 급격히 감소하였다. 시장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설탕을 수입하던 소련과 미국 등의 무역 파트너 부재로 생산량이 1990년에 800만 톤에서 1994년 400만 톤으로 격감하였다. 1995년 외국인 투자법의 시행으로 동 산업에 외국인 투자가 가능해졌고, 경작을 위한 비료와 농약 등의 투입재를 위해 외국자본이 사용되었지만 흉작으로 인해 상황이 힘들어지고 외국인 투자자들도 자금회수 지연 등의 어려움에 직면하였다.

쿠바 정부는 설탕의 국제가격이 변동함에 따라 산업구조조정을 실시하였다. 설탕공장의 일부를 폐쇄하는 것을 비롯하여, 설탕 농장의 다른 작물로의 전환, 설탕생산 노동자의 재교육 등의 조치를 단행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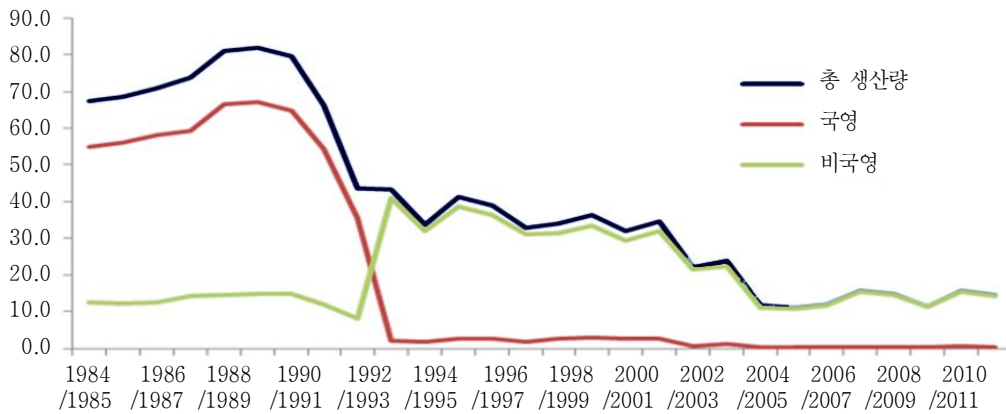
표 5 쿠바 사탕수수 재배면적과 생산량

단위: 천 ha, 백만 톤

	총면적	재배면적(천ha)		생산량(톤)		ha당 생산성(톤)	
		국영	민영	총생산량	국영	민영	총 생산성
1995	1244.5	97.1	1147.4	41.3	2.7	38.6	28.5
2000	1040.9	89.7	951.2	36.4	2.9	33.5	35.0
2005	517.2	21.8	495.4	11.9	0.4	11.5	23.0
2010	506.1	13.3	492.8	11.9	0.5	11.4	23.5
2013	400.3	8.2	392.1	16.1	0.3	15.8	40.3

자료 : ONE, 2015.

그림 3 1984~2012년 쿠바 설탕 생산량 (백만 톤)



자료 : USDA, 2015.

### 1.3.2. 농산물 교역

쿠바의 주요 수입품목은 밀, 옥수수, 쌀 등이고, 주요 수출 품목은 분밀당, 음료·주류, 천연 꿀 등이다. 2013년 쿠바의 주요 수입액 기준으로 밀은 2억 9,881만 달러, 옥수수 2억 8,987만 달러, 쌀 2억 6,870만 달러를 차지하는 등 식량의 상당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표 6>. 같은 기간 쿠바는 분밀당 4억 5,589만 달러, 음료 및 주류 9,111만 달러, 천연 꿀 1,486만 달러의 농산품을 수출하였다<표 7>.

표 6 2013년 쿠바 주요 수입 농산품목

단위: 천 톤, 천 달러

순위	품목	수입량	수입액
1	밀	778,471	298,819
2	옥수수	769,144	289,879
3	쌀	459,672	268,702
4	대두박	212,725	129,126
5	닭고기	173,432	216,393
6	대두	132,022	86,018
7	대두유	53,359	75,657
8	음식찌꺼기	41,748	30,050
9	탈지분유	34,461	158,033
10	건조 콩	33,621	40,490

자료 : FAOSTAT, 2016.

표 7 2013년 쿠바 주요 수출 농산품목

단위: 천 톤, 천 달러

순위	품목	수출량	수출액
1	분말당	827,706	455,895
2	음료·주류	30,795	91,111
3	농축 자몽 주스	5,426	10,533
4	천연 꿀	5,079	14,861
5	정제당	3,870	2,590
6	농축 오렌지 주스	3,797	8,378
7	오렌지 주스	3,000	4,000
8	당밀	1,822	672
9	과일	1,687	837
10	밀가루	1,468	632

자료 : FAOSTAT. 2016.

## 2. 농업개혁

쿠바 혁명이전 쿠바의 토지는 미국 등 외국 기업과 대지주에 귀속된 채 설탕, 담배, 커피 등 단일 경작을 위해 활용되었다. 혁명이 성공한 이후 농업부문에서는 3차에 걸친 개혁이 시행되었다. 1차 농업개혁은 1959년 라티퐁디움의 재편이었다. 라티퐁디움<sup>3)</sup> 농장은 국영화 되거나 농민에게 분배되었으며, 최대 농장의 크기는 400ha로 제한하였다. 국가는 소련연방의 지원을 받은 단일농장의 농업형태를 이어나갔으며 농민은 독립적으로 농업생산 활동을 하거나 협동조합에 귀속되었다.

2차 농업개혁은 1963년 근로자를 착취하는 대주주의 사회계층을 제거하기 위해 시행되었다. 국영농장은 이때까지 임금을 받는 근로자를 고용하여 단일경작 농업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였다.

1993년 세 번째 농업개혁이 진행되었다. 주요 내용은 토지의 사용권을 농민에게 재분배하는 것으로 국영토지의 60%가 농민에게 양도되었다. 쿠바 정부가 시행한 농업개혁을 순서대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3) '광대한 토지'를 의미하는 라틴어로 대토지 소유제도를 말함.

## 2.1. 제1차 농업개혁(1959~1963)

제1차 농업개혁은 거대 사유농지를 매각해 영세 농민을 위해 토지를 재분배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되었다. 당시 미국 기업의 소유농지가 전체 농지의 85%를 차지하는 등 외국자본의 영향력이 막대한 상황에서 국가 및 외국인 소유의 라티퐁디움을 축소하는 개혁을 실시하였다.

이는 혁명 초기 채택된 방안 중 가장 중요한 개혁으로 10만 명의 가족농에게 토지의 개인분배를 실시하였고, 쿠바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던 외국 국가에게 막대한 영향을 주었다. 또한 소농을 제외한 쿠바의 토지를 소유하는 외국인과 기업의 권리를 무효화 시켰다. 그 결과 토지의 소유권은 국영 390만 3,000ha 민영 517만 4,000ha로 전체 면적의 44%와 56%를 차지하게 되었다.

## 2.2. 제2차 농업개혁(1963년)

제2차 농업개혁에서는 일정규모 이상의 농지를 몰수하여 대규모 국영농장을 설치하고자 하였다. 186만 3,000ha의 토지가 국영소유로 전환되어 1963년 8월에 국영 토지는 약 551만 4,000ha(60.7%)로 증가하였고 민영부분은 356만 3,000ha(39.3%)를 소유하게 되었다.

이후 1963~88년 사이 국가 소유의 토지가 60%에서 82%로 증가하였다. 국영농장은 축산, 커피, 쌀, 레몬류 등의 농작물 생산을 위해 조직화 되었으며, 신기술 도입을 통해 생산성 향상도 이루어졌다. 1976년이후부터 농민들이 자신의 토지와 자산을 공동 운영하는 농업생산협동조합(Agricultural Production Cooperative, CPA)이 설립되었다.

## 2.3. 3차 농업개혁

1990년 소련 및 동구의 붕괴로 인해 쿠바는 생활용품, 생산요소, 석유, 사료 등의 수입품 품귀현상을 겪게 된다. 대부분의 생활용품과 식량이 부족해지면서 심각한 경제 위기를 겪게 되는데 동기간 쿠바의 국민은 식량부족으로 남자는 5kg, 여자는 3kg에 달하는 체중이 감소하기도 했다. 1991년 카스트로는 국가비상사태 (평화시의 특별기간)를 선언하고 경제개혁과 농업개혁을 단행하였다.

미국은 1959년 쿠바 혁명 이후 미국 기업의 국유화, 쿠바의 사회주의 표방, 피그만 침공사건<sup>4)</sup>, 쿠바 미사일 위기 등으로 양국관계가 악화되자 1960년 설탕 등 일부품목



---

에 대한 부분적인 대 쿠바 금수조치를 단행하였다. 이후 1962년 전면적 금수조치를 강행하면서 쿠바의 경제적 봉쇄를 시작하게 되었다. 1992년 미국의 쿠바 민주화법 제정으로 미국계 기업의 쿠바 거래가 금지되는 등 금수조치는 더욱 강화되어 쿠바는 심각한 경제위기를 겪게 되었다.

쿠바 민주화법은 미국기업 해외지사의 대 쿠바 교역 금지, 쿠바 지원국에 대한 미국 원조 및 무기판매 중단을 포함하는 반면에, 쿠바 국민에 대한 식량과 의약품 등의 인도적 지원은 허용되었다. 이후 1996년에는 미국의 의약품과 식료품의 수출까지 금지하는 헬무드 버튼법<sup>5)</sup>이 제정되어 쿠바를 경제적으로 압박하였고, 쿠바의 GDP는 1989~93년간 48% 감소하는 등 심각한 경제위기를 초래했다.

1990년 쿠바는 소련 붕괴 이후 심각한 경제 위기를 경험했고 이러한 현상은 농업부문에서도 여실히 나타났다. 쿠바는 경제위기에 대처하기 위해 경제개혁과 함께 제3차 농업개혁을 단행하였다.

이를 통하여 생산성이 떨어지는 대규모 국영농장을 분할하여 기초단위협동조합(Basic Unit of Cooperative Production, UBPC)로 재편하여 100만 ha이상의 토지사용권이 농민에게 무료로 제공되었다. 경제위기시기에 농업분야의 또 다른 변화는 토지 사용권을 양도받은 경작지에서 다양한 품목이 재배된 것이다.

예를 들어 담배 경작에 적합한 유휴지의 배분으로 현재까지 6만 ha이상의 토지에서 담배생산이 이뤄지고 있으며 커피와 카카오 경작을 위해 약 7만 6,000ha의 경작지가 양도되었다. 제3차 농업개혁은 새로운 생산구조의 재편뿐만이 아니라 지속성과 생산성이 높은 모델을 만들기 위해 토지를 다양하게 활용하는 근본적 변화의 시작을 의미했다.

3차 농업개혁은 단작화에 의하여 토질이 악화하고 대규모 농장의 존립이 불가능해지는 상황에서, ① 비효율적인 국영농장의 규모를 축소하고자 했으며, 소농을 육성하기 위하여 ② 새로운 협동조합인 기초단위협동조합(UBPC)을 설립하였다. 또한 ③ 담배 및 커피 생산자에게 토지를 분배하였고, 오늘날 도시농업을 유기농업으로 확산하여 식량자급률을 향상하기 위한 ④ 텃밭농원의 임대를 실시하였다.

---

4) 1961.4월 쿠바 사회주의 국가선언으로 미 중앙정보국이 주축이 되어 쿠바를 침공한 사건임.

5) 1996.3.12. 미국의 대 쿠바 금수조치 및 쿠바제재 강화하는 법임.

### 3. 농업경영

#### 3.1. 농업경영체

##### (1) 국영농장

쿠바농업은 세 차례의 개혁을 거치면서 다양한 경영체가 육성되었다. 대표적인 것이 국영농장, 기초단위 협동조합(UBPC), 농업생산 협동조합(CPA), 신용서비스 협동조합(CCS) 등이다.

먼저 국영농장은 국가가 관리·운영하는 농장을 의미한다. 주로 쌀과 사탕수수 중심의 작물을 재배한다. 토지의 소유권·사용권이 국가에 귀속되고 국영농장 종사자는 경영권을 소유하지 않은 임금노동자의 자격으로 농업활동을 하게 된다. 대부분의 경우 노동자의 생산의욕과 생산효율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난다. 국영농장은 쿠바 경제위기 이전에는 대형기계를 이용한 일관체계로 경영되었다.

##### (2) 기초단위 협동조합(Basic Unit of Cooperative Production, UBPC) : 1993년 이후 창설

UBPC는 경제위기 이후 사탕수수와 비사탕수수 부문의 대규모 국영농장을 분할해 설립되었으며 그 규모는 10분의 1로 경량화되어 재편되었다. UBPC는 국영기업과 협동조합의 혼합 형태로 토지 소유권은 국가가 보유하고 있으며 정부가 재배품목을 지정·수매하는 구조를 가진다.

조합원은 국가로부터 구입한 생산 자재·기계를 사용해 양도받은 토지에서 공동으로 농업활동을 하며 사탕수수 또는 사탕수수 이외의 과수, 커피, 담배, 축산 등을 재배·사육하는 농업활동이 이루어진다.

설립이후 사탕수수 재배면적이 급속히 축소되고, 대신에 쌀, 채소, 구근류 등의 식량작물과 채소 재배가 증대되는 양상을 보였다. 생산성이 낮은 경영도 다수 존재하는 등 오랫동안 적자에서 벗어나지 못하였지만 사탕수수에서 식량작물로의 전환과 자급자족의 기반마련 등 국가적 차원에서는 식량위기를 극복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 (3) 농업생산 협동조합(Agricultural Production Cooperative, CPA) : 1975년 이후 창설

1975년 쿠바는 다른 사회주의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소련을 모델로 한 사회주의 국가를 건설하고자 하였고, 쿠바혁명의 일환으로 CPA를 설립하였다. CPA는 농민이 자

발적으로 조합원으로 참여하지만 국가의 하부조직으로 국가의 직접적 관리 아래 운영되었다. 조합원은 협동조합 소유의 토지에서 공동경영의 형태로 농업활동을 하고, 토지, 생산수단, 생산시설 등의 소유권·사용권은 협동조합에 귀속된다.

**(4) 신용서비스 협동조합(Credit and Service Cooperatives, CCS) : 1960년대 이후 창설**

CCS는 1959년과 1963년 사이 농업개혁법의 수혜를 입은 농민들의 자발적 참여로 창설되었다. 소비 협동조합인 CCS는 개인농가 조합원이 국가로부터 공동 융자를 받고, 자재·기계를 공동 구입한 후 공동 이용을 목적으로 한다. 농가는 토지 소유권을 보유하고 자기 경영을 실시하며 일반적으로 공동작업은 계약에 의하여 실시한다.

표 8 농업 협동조합 현황 (2011년 기준)

	협동조합	조합원	총 고용인구대비(%)	농지(1000ha)	총 농지대비(%)
CCS	2,644	352,565	7.04	1,242	18.7
CPA	1,002	53,916	1.08	590	8.9
UBPC	2,156	160,000	3.19	1,853	28.0
합계	5,802	566,481	11.31	3,685	55.6

자료 : ONE, ANAP, MINAG ; Camilia. 20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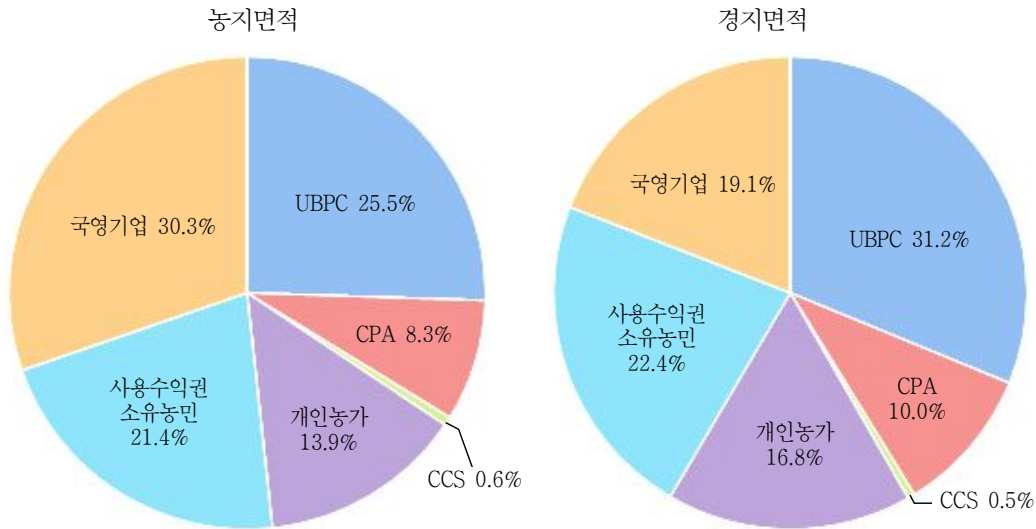
2011년 쿠바에는 약 6,000개 농업협동조합이 운영되고 있으며, 조합원 수는 총 50만 명으로 쿠바 총 고용인구의 11%를 차지한다. 또한 쿠바 농업부의 발표에 따르면, 토지를 소유하거나 사용수익권을 제공받은 토지를 통틀어 협동조합이 차지하고 있는 농업 면적은 쿠바 농업면적의 50%에 해당한다.

**3.2. 농업경영 현황**

국가는 생산자가 생산한 농산물을 일정비율로 수매하는데 이를 담당하는 기관이 농산물유통공사이다. 작물별 수매비율을 살펴보면; 쌀은 40~50%이며; 감자, 우유, 소고기는 100%를 차지한다. 수매가격은 자유시장 가격보다 낮은 수준으로 책정되며 생산자는 자유시장으로 판매도 가능하지만 수송수단 부족이 자유시장 판매를 곤란하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2015년 기준 경영체별 농지 점유율을 살펴보면, 총 면적 624만 ha에서 국영농장이 30%, UBPC는 25%, CPA가 8%를 차지하고 있으며, CCS와 개인농가 및 사용권을 양도 받아 경작되고 있는 농지 면적은 36%에 해당한다.

그림 4 경영형태별 농지와 경작지 비율



주 : 경지면적은 농지면적(624만ha)에서 초지와 과수원을 제외한 면적임.  
 자료 : ONE, 2015.

2014년 기준 쿠바에서 생산된 식량의 402만 톤 중 쿠바 농업부에 속한 366개의 국영 기업이 생산한 식량은 총 생산량의 10%를 차지하는 등 자국의 식량 수요를 충족시키는데 크게 기여하지 못하고 있다. 기초단위 협동조합(UBPC) 또한 국영기업 다음으로 가장 비옥한 경작지를 다량으로 보유하고 있지만 총 농산물 생산의 6.1%를 차지했는데 경영부진과 운영의 비효율성으로 인해 달성하고자 하는 생산계획을 지속적으로 달성하지 못한 채 많은 손실량을 발생시켰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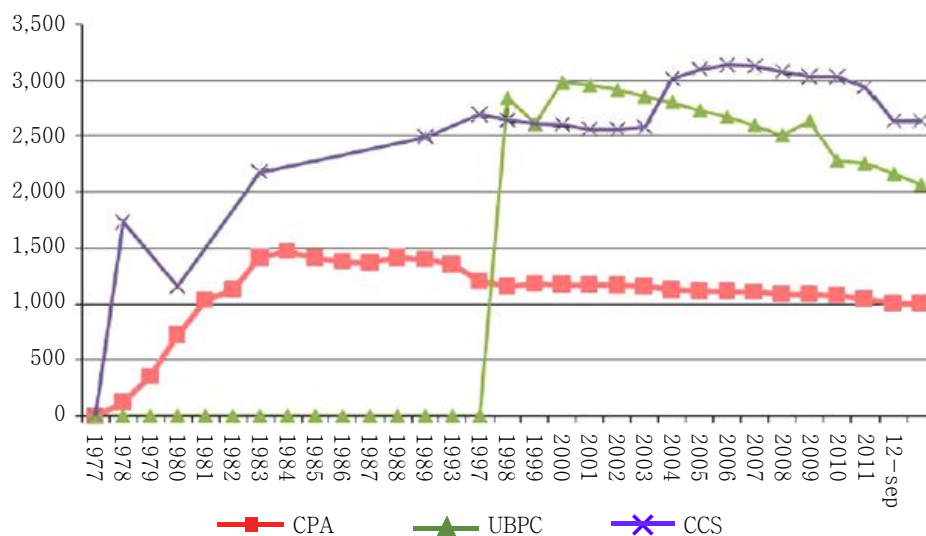
즉 국영 농업기업 및 UBPC가 보유한 토지 면적은 352만 9,100ha로 양질의 토양과 경작에 필요한 자원 및 생산도구를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생산량은 전체 농산물의 16%만을 차지하고 있다. 이외는 대조적으로 CCS와 개인농가는 가장 높은 생산성을 달성하고 있는 주체로 이들의 생산량은 국내 식량생산의 74.6%를 차지한다. 이러한 높은 생산성은 도매 기업의 높은 가격 책정과 성능이 낮은 투입자재 공급 또는 수확한 작물이 적기에 운반되지 못하는 운송시스템의 제약 속에서 이뤄낸 결과다.

일반적으로 협동조합의 설립이 안정적 일자리의 제공, 사회적 재화와 서비스 제공 등 농촌사회 삶의 수준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한 것은 사실이지만 해결해야 할 문제점들도 발견되었다. 우선 낮은 임금은 조합원의 사기를 저하시켰고, 국가에 판매되는 생산물의 가격이 낮게 책정된 것은 생산성을 저하하는 결과를 낳는다. 또한 쿠바 협동조

합은 자신들의 운영과 관리에 있어서 독립적인 자치권을 행사하지 못한 채 국가의 관리 아래 운영된 것도 사실이다.

예를 들어 대부분의 협동조합은 국영기업을 제외한 다른 경제주체와는 자유로운 매매 계약을 진행 할 수 없다. 결과적으로 생산물의 판매와 농업투입재의 공급 등 기본적인 결정을 내리는 독립성이 보장되지 않는다. 생산량과 국영기구에 판매할 양 또한 자체적으로 결정할 수 없어 생산계획의 독립적 진행도 불가능하다. 이러한 제약과 어려움으로 인해 CPA는 1983년 약 1,500개에서 2011년 1,000개, UBPC의 경우 1998년 3,000개에 이르던 조합 수가 2011년 2,300개로 대폭 줄어들게 되었다. 이와 같은 CPA와 UBPC의 탈퇴는 2008년 개인이 무료로 양도권을 소유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가속화된 것으로 보이며 새로운 조합은 설립되지 않고 있다<그림 5>.

그림 5 농업협동조합 수(1977~2012. 9)



자료 : ONE; Valdez paz. 2015.

### 3.3. 경영사례

#### (1) 알라마르 농장(UBPC)

알라마르 협동농장은 토지의 국가소유에 의한 협동조합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쿠바 내에서 성공적인 도시농업을 정착시킨 농장으로 인정받고 있다. 이곳에서는 혼작과 간작, 지렁이를 사용한 퇴비사용, 바이오농약 사용 등 다양한 방식의 유기농업

활동이 이뤄진다.

알라마르 농장은 1997년 5명의 협동조합원으로 시작되었지만 현재 160여명 이상이 참가하고 있다. 이 중 여성이 40명, 60세 이상의 퇴직자는 80명을 차지하고 있는데 여성과 노인의 참여율이 매우 높음을 보여준다.

농장의 생산물은 상추, 청경채, 토마토, 파 등을 포함한 채소 34종으로 연간 5기작으로 운영된다. 농장에서 재배된 생산물의 판매는 지역급식이 70%, 시장판매가 30%를 차지하며, 일자리 창출과 사회보장 역할 등의 효과가 있다. 단지 자재확보 등의 문제점이 주요 해결사항으로 대두되고 있다.

그림 6 Vivero Alamar 농장



자료 : Google.2016.

(2) 일벨트 레온 농장(CPA)

이 농장은 생산수단의 통합에 의한 협동조합방식으로 1986년에 설립되었다. 농장의 면적은 약 300ha를 차지한다. 조합 참가자의 수는 100명이나 수확기 등의 시기에는 추가로 100여명의 근로자를 임시적으로 고용하기도 한다.

주요생산물은 30ha 면적에서 생산되는 담배 및 곡물, 채소, 과수 등을 꼽을 수 있다.

---

관개시설의 부족과 화학비료 및 농약 확보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농민의 이농과 이에 의한 후계자 확보문제가 대두되고 있다(東京農業大学, 2009. 3).

### (3) 에스스 메넨데스(CCS)

1989년 설립된 농장으로 450ha의 농지에 218명의 조합원이 참가하고 있다. 참가자는 생산수단의 소유권을 유지하면서 공동경작과 자재의 공동이용을 실현하고 있다.

주로 근채류, 채소류, 양동, 우유, 꽃 등이 생산되고 있으며, 채소는 국가유통공사 아코피오 (ACOPIO)에 80%, 정부가 지정한 시장에 20%를 판매하고 있다. 돼지는 5농가와 계약을 통해 판매를 실시하며, 우유와 같은 품목은 지역 판매점에서 직접 판매가 이루어진다. 조합원은 운반수단을 보유하지 않았기 때문에 시장판매의 어려움을 가지고 있다(東京農業大学, 2009. 3).

## 4. 농업협력 가능성

쿠바 농업이 가지는 특징을 종합적으로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1962년 미국의 경제봉쇄 이후 쿠바는 자국생산에서 채워지지 않는 부족품은 대부분을 소련 등 사회주의 국가에 의존하는 경제구조를 가지게 되었다. 이러한 의존형 경제구조는 1990년 소련의 붕괴로 더 이상 수입이 이뤄지지 않게 되면서 국가 위기를 증폭시키는 원인이 되었다.

경제위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쿠바가 실시한 농업개혁의 특징은 대규모 국영농장화 및 협동조합화(CPA)에서 국영농장의 협동조합화(UBPC, CCS) 및 개인농가로의 전환이 이루어진 점이다.

농업생산 측면에서 CCS를 포함한 개인농가의 생산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특히 국내 생산물 중 쌀의 36%, 채소의 64%, 바나나의 51%, 옥수수의 82%에 상당하는 농산물이 CCS에서 공급되었다. 대규모 농장으로의 구조개혁은 성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러한 정책실패가 식량문제, 후계자 부족, 자급률 하락 등의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한국과 쿠바간의 농업협력 가능성을 살펴보면, 식량자급력 향상, 농업의 성장산업화 실현, 도시농업의 활성화, 농업과 연계한 사회 안전망 구축 등의 측면에서 협력가능성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1) 식량자급력 향상**

쿠바 농업은 도시농업, 유기농업, 지속가능한 농업으로 잘 알려져 있다. 단지 인구 1,100만명에 농지 630만ha로서 식량자급률은 47%에 불과한 것이 취약점이다. 쿠바는 식량 자급과 생활 향상을 중요한 정책목표로 설정하고 있지만 주식인 쌀 자급률은 59%, 옥수수는 36%, 밀은 0%로서 인구 5,000만명에 농지 170만ha인 한국보다도 자급률이 열악한 상황이다.

식량 자급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국민이 소비하는 주식의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면서 유기농업 강국 아바나 채소자급 유기농업이 국가개조 등의 기치를 내걸고 있는 쿠바 농업에 대해서 재평가해야 한다(김태곤, 2016.3).

자급률이 낮은 요인은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하나는 농업개혁 과정에서 대규모 농장으로의 구조개혁이 경영효율을 부진하게 했다고 할 수 있고, 다른 하나는 사회주의 국가이면서도 생산이나 생활 자재 등을 소련 등 동구 사회주의 국가의 수입에 의존한 결과 소련 붕괴이후 자재부족에서 그 요인을 찾을 수 있다. 단지 생산성은 떨어지지만 유기농업으로의 전환이 불가피했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유기농업으로의 전환은 당시 상황에서 볼 때 최선의 선택이라고는 할 수 있다.

쿠바의 도시농업도 한국의 텃밭농원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도시농업과는 전혀 다른 구조이다. 쿠바의 도시농업은 공간적으로는 도시농업 과 도시근교농업을 대상으로 하여, 생산자재 제약으로 유기농업으로 행해지며, 농지면적으로는 약 200만ha에 달한다.<sup>6)</sup> 이 중에는 일부 자급중심의 텃밭농원 성격의 농장도 있지만 대부분이 산업으로서의 농업이다. 이러한 도시농업이 도시주민에게 신선한 채소와 과일 등을 연중 공급하는 점에 대해서는 평가할 수 있다.

쿠바 농업부는 식량자급력 향상을 긴급한 농정과제로 설정하고 있다. 앞으로 자재 공급이 가능하다면 유기농업보다는 자재 투입을 통하여 식량증산을 도모한다는 방침을 밝히고 있다(東京農業大學, 2009. 3).

쿠바가 국민의 기초식량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서는 농약이나 비료 등 자재의 충분한 공급을 비롯하여, 생산기반(농지, 농도, 저수지, 수로 등)의 고도화, 안정적인 생산을 위한 기술농법 확립 등에 대해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한다. 이러한 점은 한국 농업이 가지는 강점이며, 식량자급률 향상이라는 측면에서 양국간에 협력이 가능한 분야이다.

6) 벨소 폼파나오니 쿠바열대농업연구소(INIFAT) 소장의 증언.



---

## (2) 농업의 성장산업과 실연

농업이 부가가치를 창출하여 그 과실이 농촌지역에 골고루 배분되면 농촌주민의 삶의 질은 향상된다. 쿠바는 교통이나 수송 수단의 제약이 작용하여 일정 지역을 단위로 한 농산물 거래, 즉 로컬푸드가 전국 방방곳곳에 발달한 것이 특징이다.

이와 같은 인프라를 활용하면서, 현재의 신선 농산물 중심의 공급보다는 가공이나 직판 등에서 후자경영을 하는 사례를 고려할 때, 생산·가공·판매를 통합하는 농업의 6차산업화와 로컬푸드가 지역단위에서 식량수급을 원활하게 하면서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쿠바는 이미 관행농업에서 유기농업으로 전환하였다. 나아가 환경이나 생태 보전, 농업자원의 보전관리와 같은 공유가치 창조에 유리한 조건을 갖추고 있다. 이러한 방향은 시장경제를 넘어선 영역의 확장이라는 의미를 가진다. 이점은 지나치게 글로벌화의 소용돌이 속에서 지역농업이나 지역경제에 심각한 영향을 받는 있는 한국 사회에 시사하는 점이다.

## (3) 도시농업의 활성화와 사회안전망 구축

쿠바 농업은 도시농업으로도 요약할 수 있다. 앞서도 언급하였듯이 쿠바의 도시농업은 다양한 의미를 가진다. 도시주민의 자가소비 농산물에 대해 자급자족 역할을 하는 농업을 비롯하여, 산업으로서의 농업, 사회복지로서의 농업 등에 대해서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알라마르 농장(UBPC) 사례를 다시 언급하면, 10ha의 경영규모에서 연 5기작으로 34종의 채소를 생산, 지역급식 등에 공급하고 있다. 이 농장에 종사하는 자는 160명이며, 이 중에서 여성이 40명, 60세 이상 고령자가 80명이다. 도시농업은 도시민의 일자리 만들기과 고령자에 대한 사회보장의 역할을 한다. 다시 말하며 농업이 가지는 노동집약적 성격이나 단순·보조작업적 성격을 살려서 지역에서 여성이나 고령자에게 적합한 일자리를 만드는 사례로서 높게 평가할 수 있다.

이와 같이 도시농업은 사회안전망(social safety net)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한다. 즉 도시농업은 자급자족의 즐거움, 일자리 만들기, 식량 확보, 그리고 도시주민의 삶의 질 향상 등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것이 쿠바 농업이 시사하는 의미이다.

## 참고문헌

- 김태곤. 2016. 3. 쿠바농업의 이해와 협력가능성 . 농경토론회자료. KREI.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16. 「쿠바 정치·경제현황 및 한·쿠바 경제관계」. KIEP.
- 요시다타로 저, 안철환 역. 2004. 「생태도시 아바나의 탄생」. 들녘.
- 윤정현. 2015. 쿠바의 지속가능한 농업과 정책 . 「세계농업」. 제179호. KREI.
- 이상현. 2002. 혁명은 계속된다 : 쿠바 유기농업 현장을 찾아서 . 「환경과 생명」. 제31호. 환경과 생명사.
- 조봉운. 2013. 유기농업의 대표국가, 쿠바의 도시농업 . 충남발전연구원.
- 조완형. 2000. 쿠바가 진행하는 농업혁명 . 「농민과 사회」. 제23호. 한국농어촌사회연구소.
- 외교부. 2015. 「쿠바개황」. 외교부 중남미국 중미카리브과.
- 휴워릭(Warwick, Hugh). 2000. 쿠바의 유기농업 혁명 . 「녹색평론」. 50. 녹색평론사.  
두산백과. 2016.
- 東京農業大学. 2009. 歴史的移行期にあるキューバ農業の現状 . 第2次視察報告.
- Osmar laffita rojas. 2015. El balance de la agricultura. Diario de Cuba.
- Camila Pineiro Harnecker. 2014. Las cooperativas en Cuba: situacion actual y perspectivas. Publicado en Font, Mauricio A.y González-Corzo, Mario (eds.) Reformando el Modelo Económico Cubana, Bildner Center for Western Hemisphere Studies, City University of New York, Nueva York, 2014, pp. 63-82.
- Christina Ergas. 2013.Cuban Urban Agriculture as a Strategy for Food Sovereignty. MONTHLY REVIEW. vol.64 iss.10.
- KIM Tae Gon.2016. Korean Agriculture's Streangths and Limitations : The Possibility of Cooperation Between Korea and Cuba. Korea-Cuba Knowledge Dialogue. in Havana.
- Miguel A. Altieri and Fernando R. Funes-Monzote. 2012. The Paradox of Cuban Agriculture. Monthly review. vol.63 iss.8.
- ONE. 2015. Panorana uso de la tierra. Cuba2014.
- \_\_\_\_\_. 2015. Sector agropecuario ondicadores seleccionados.
- \_\_\_\_\_. 2016. Anuario estadistico de cuba 2015.
- USDA 2015. Where to Next for Food and Agriculture. Global Agricultural Information Network.

## 참고사이트

- 국제연합식량농업기구. [www.fao.org](http://www.fao.org)
- 쿠바 통계청. [www.one.cu](http://www.one.cu)
- 쿠바 농업부. [www.agricultura.minag.cu](http://www.agricultura.minag.cu)